

◎ 新羅青銅方形舍利盒의 發見

七月二四日 慶州市 普門里二四 金亥出(五四)氏는 東川里 東方 二km地點 藥山中腹에서 우연히 露出된 石函內에서 發見云。

高五·三cm 幅五·七cm의 方形으로 中央에는 寶珠形꼭지와 寶相華紋이 盒의 四面에는 四天王像이 線刻되어 있다。慶博에 入手되었는바 內容物은 未詳。

安東 場基洞 磨崖 三尊佛

— 第五卷 第九號 通卷五十號 —

秦 弘 燮

安東郡 北後面 場基洞 벽절部落 西北쪽約 一km 地點 山峰에 巨岩들이 重疊되어있으니 洞里에서 귀질바위라고 부른다。 其中 北東面한 岩石三 個를 擇하여 三尊佛을 彫刻하였고 이 岩石위에는 넓직한 岩石이 놓여서 自然의 蓋石을 이루고 있다。 本尊을 彫刻한 岩石은 高約 二·六m 넓이 約 一·六m로 여기에 높이 一·三三m의 舟形龕形을 파고 如來坐像을 浮彫하였다。 龕形 밑은 仰蓮臺를 彫刻하였는데 위에 七葉, 아래 五葉의 二重蓮瓣으로 되어있다。 佛身은 素髮에 比較的 높은 肉髻가 있으며 귀는 길고 눈고리는 길게 옆으로 흘렀다。 微笑를 띠고있는 相好는 매우 整齊되었다。 목에는 三道가 있고 法衣는 右肩偏袒이다 前面에는 袈衣의 紐帶가 보이며 左肩上에는 衣紋 四條가 굵게 나타났고 그 밑으로는 S字 形을 이룬 지름이 보인다。 右手는 膝上에 얹고 左手는 臍前에서 有蓋壺를 받치고 있어 佛像의 向과 아울러 藥師如來로 推定된다。 龕形 上端에서 蓮臺下端까지 一〇·五m, 佛身高 一·三m 頭高 三三cm, 肩幅 五五cm, 膝幅 九六cm이다。

左脇侍菩薩이 彫刻된 岩石은 높이 約 二·一五m 넓이 約 三m인데 本尊쪽으로 불려서 立像을 浮刻하였다。 磨滅이 너무 甚해서 細部를 全然

第五卷 第八號 通卷四十九號

알수 없다。 三面寶冠만은 제법 알아볼 수 있고 相面은 輪廓만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足下의 花瓣을 認定할 수 있으니 아마도 蓮臺上에 正面直立한 像인 듯하다。 身高約 一·一m 頭高約 三二cm

右脇侍가 彫刻된

岩石은 제일 적어서 높이 約 一·三三m 넓이 約 七〇cm이다 彫刻은 現在 높이 四〇cm의 膝部以下만 이 남아 있고 그 以

上은 別石으로 嵌入하였던 듯이 보인다。 即 膝部를 水平으로 잘라서 幅 三七cm 깊이 一八cm의 段形을 만들고 別石으로 만든 佛身을 그 위에 올려 놓았던 모양이다。 里人들의 말에 依하면 約 三十年前 某 僧侶가 업어 갔다고 하는데 行方을 모른다고 한다。 남은 部分을 보면 天衣端이 臺座까지 내려왔고 瓔珞의 一部가 나타났으며 兩足은 左右로 벌려 있다。

以上과 같이 兩脇侍菩薩이 不完全한 三尊佛이기는 하나 本尊佛은 完存하고 刻명한 彫刻이나 整齊된 佛體가 秀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安東地方에서의 三尊佛像은 이것이 初例로서 注目된다。

佛像이 彫刻된 岩石 밑에는 넓이 七·八十坪 程度의 二段의 築臺가 築造된 臺地가 있고 다시 東北便에 博塔址(資料欄參照)가 있다。 이 地帶를 감싸듯이 西北方에서 南方에 걸쳐서 玉山이 걸쳐있고 層層히 쌓인 岩



石 밑에는 石窟이 있다 永嘉誌 佛守條에는

玉山寺 左府北三十二里 玉山中 共北五里有石穴이라 있어 「玉山中」이나 「有石穴」이나 모두 現地狀況과 附合됨으로 玉山寺로 推定할만하다. 이地點은 瓮泉部落南方에 位置하는바 「瓮泉驛」은 「在府北三十五里」라 하였으며 永嘉誌에 실린 塚塔에 關한 記錄도

「瓮泉驛南方玉山之北」

이라 있으니 이를 宗合하여 玉山寺址로 보아도 無妨하리라고 생각된다.

太一殿銘 李朝白磁象嵌

崔 淳 雨

李朝白磁象嵌에 關한 새 知見이라고 할수있는 在銘白磁象嵌托蓋하나가 李洪根氏所藏品中에서 새로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 托蓋은 이 部類의 李朝그릇으로서 처음 알려진 在銘器로서 簡古한 손잡이가 양쪽에 붙어있는 唐草文이 象嵌된 蓋과 안바닥에 「太一殿」三字를 象嵌한 잔대로 되어 있으며 이 잔대의 곱바닥에는 「十」字로 보이는 陰刻銘이 남아 있다.

釉調와 釉色은 뛰어나지 못했으나 溫雅한 帶錄의 白磁釉에 세밀한 氷裂이 있는 高麗白磁流의 釉樂이 비교적 두텁게 施워져있다 「太一殿」이라는 銘文은 아마도 文字를 解得 못하는 사람이 색인 모양으로 字劃도가 누지 못한 稚氣있는 表現이 재미있어 보인다 「太一」이라함은 이미 高麗時代에는 있었던 星座에 祭祀, 祈禱하는 信仰으로서 高麗史에는 別서 文宗十年九月 己丑에 「祀太一於壽春宮 以禳火災」란 句節이 처음 보이고 그 밖에도 高麗史의 여러저기에 「醮太一於內殿」이라던가 「新醮太一於文德殿以祈風雨調順」 또는 「醮太一祈雪」等 國家的인 祭祀 祈禱의 句節이 보이고 있다. 獨立된 祠宇로서 太一殿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高麗史에는 없는것 같고 李朝實錄太祖六年(一三九

八) 九月戊申條에

「罷太一殿合於昭格殿」이라고 있는것을 보면 아마 李朝國初로부터 太祖六年

까지 存續했으며다 시 없어졌다가 어느 時機에 義城에 太一殿이 設置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義

城太一殿에 關해서 는 東國輿地勝覽卷二十五 義城古蹟條에 「在水穴傍 每歲

上元 降香以祭 成化十四年戊戌(一四七

八) 移忠淸道 泰安郡」이라는 기록이

있고 小書卷十九 泰安縣祠基條에는 「在白華山古城內成宗十年己亥自慶尙道義城縣移安于此」

란 것이 있는것을 보면 一四七八年 以後는 義城에서 忠淸道泰安에 移置해서 存續했음을 알수있다.

이 托蓋은 慶尙道出土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 樣式技法으로 보아 太祖六年以前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됨으로 결국 이것은 太一殿이 義城에 있던 一四七八年 以前, 말하자면 대체로 十五世紀 前半期頃에 太一殿에 納品하기 爲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義城에서 머지않은 地方官窯의 産이었으리라 하고도 할수 있을듯 하다.

李朝初期의 白磁에 鐵砂 또는 赭土로 蓮唐草文等을 비롯한 무늬를 象

